

그때 그랬지...

종로 5가의 추억



종로5가 시절, 종로5가 주조절실은 10층에 위치하고 있었고 주조절실과 기술국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. 기술국 창가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 시내버스 종점인 차고지가 있었는데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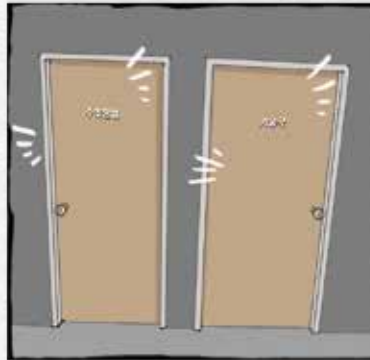


당시는 버스 안내양이 있던 시절이라 차고지와 더불어 안내양 탈의실이 있었다. 교대시간이 되었고 버스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유니폼을 단정히 입은 안내양들도 내렸다.





잠간 방송진행 중 스텝 한 사람이 불일을 본 후 창가 전경을 바라보다가 우연히 안내양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발견하였다. '헉!' 호기심에 가득찬 모습으로 보고 있으려니 방송하던 PD, .



엔지니어 등 스텝들이 하나 둘씩 원데? 하며 웅성웅성 모여들더니 그 광경을 보고 모두 정신이 없었다.

당시는 고영수씨가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되어도 주조정실에 아무도 없었고 온에어가 꺼지지 않았다.



할 수 없이 방송하고 있던 고영수씨는 방송 말미 네임사인에 “연출○○○, 기술○○○였습니다.”라고 끝 멘트를 하였음에도 온에어가 꺼지지 않자, “주조정실을 방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반실○○○, 청소아줌마○○○, 그리고 방송국 전체를 지켜주시는 경비아저씨○○○...”등등 시간을 떼우느라 비지땀을 뻘뻘 흘렸다고 한다. 덕분에 청소아줌마 이름이 방송을 타서 누구는 좋았다고

